

11학년, 지원 대학 구체화 해야

2024학년도 미국 주요 대학의 정규 전형(레귤러) 합격자 발표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다. 이제 2025학년도 대입 원서 마감도 7~8개월 정도 남았다.

11학년 학생들은 지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학교 성적도 올려야 하고 특별활동도 계속해야 한다. SAT, AP 시험을 보려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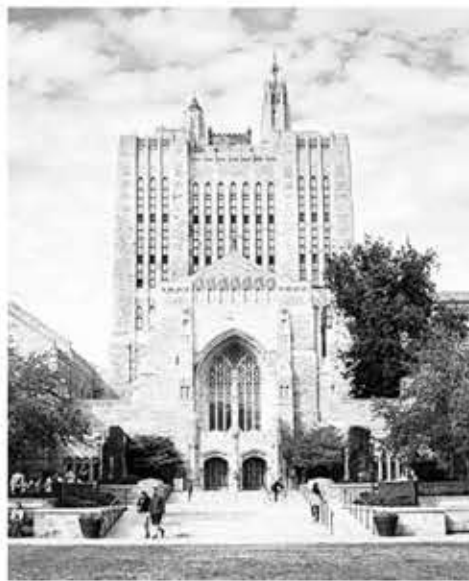
이처럼 바쁘게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이 시기에 11학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지원할 대학을 좁혀서 보다 구체화 하는 것이다.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할 것인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지원할 대학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구체적 윤곽이 잡혀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합격 전략을 짤 수 있다.

학생 자신의 능력 혹은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지원대학을 고르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로 돌아와 자신이 정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골라야 한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준비를 할 것들이 많다. 반면 대부분의 주립대학들은 학업 성적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학교 성적이 어떤가를 보고 지원 대학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SAT, ACT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Test Optional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왔던 대학들 가운데 SAT, ACT 성적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예일대학교와 다트머스대학교 등은 이미 SAT, ACT 성적 제출 의무화를 표명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GPA 점수와 SAT, ACT 성적을 고려해 지원 대학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GPA 점수는 높은데 SAT, ACT 성적이 부족하다고



▲ 예일대 스텔링 기념 도서관. 사진=shutterstock

생각된다면 Test Optional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GPA 점수와 SAT, ACT 성적이 모두 상위권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 어디든지 지원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GPA가 다소 낮더라도 높은 SAT, ACT 성적이 갖고 있다면 안전한 대학 1-2개와 함께 더 상위권 대학에 과감하게 도전해 볼 필요도 있다.

따라서 지금 11학년들은 자신의 학업 성적을 기반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의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격차가 너무 크면 지원할 대학교 리스트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치되거나 근접해 있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시 전략을 짜야 한다.

더불어 재정보조/장학금이 필요하다면 대학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제적인 여건이 대학 선택의 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재정보조를 받지 못해 등록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합격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우수 논문 작성, 미국 명문대 진학의 지름길

미국 대학 입시에서 지원자들의 논문 작성 이력은 진학에 도움이 될까?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명문 아이비리그 가운데 하나인 유펜은 2023학년도 합격자 트렌드 리포트에서 합격자 1/3이 연구 논문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우수한 논문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대학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더라도 독창적인 시각과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핀다. 모두가 외면했던 문제에서도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독창적인 눈, 한정된 기술로도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능력에서 대학은 지원자의 가치를 발견한다.

대체적으로 대학들은 학생의 논문을 해당 분야 전공 교수가 읽도록 한다. 또한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그 자체로 평가를 높게 해 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Intellectual Curiosity (지적 궁금증)를 보여주는 것이다.

논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Proceeding: 학회 발표 목적 논문
- 2) Article(Full Paper): 학술지 즉 저널 투고 논문 대부분
- 3) Review Paper: 여러 연구자의 복잡한 연구성과를 다루는 논문
- 4) Thesis/Dissertation: 학위 과정에 쓰는 논문

이 가운데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논문의 수준은 Article(Full Paper)나 Review Paper다. 교수나 전문가들이 쓰는 논문 수준인 Proceeding이나 석박사 학위 논문인 Thesis/Dissertation

수준으로 쓰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느 수준의 지적 궁금증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한다.

- * 1단계: 관심 분야 관련 수업 이수하기
- * 2단계: 전차 관련 고급 수업을 이수하고 우수한 성적 받기
- * 3단계: 학교 밖에서 더 구체적인 관련 교육받기(Dual Enrollment 대학 수업, Coursera 같은 Certification 수업, 대학 여름 프로그램, 리서치 프로그램, 인턴십 등)
- * 4단계: 관련 분야에 Passion Project로 스스로 연구 논문 활동하기
- * 5단계: 분야에 권위 있는 교수로부터 연구 논문 지도를 받거나, 주도적인 연구에 Co-Author로 저명한 논문지에 소개하기

여기서 높은 Intellectual Curiosity (지적 궁금증)는 4단계 이상을 말한다. 학생들은 이를 위해 AP 캡스톤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AP Capstone는 College Board에서 개발한 2년 과정 수업으로 AP Seminar와 AP Research의 두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 두 과정을 마치면 AP Capstone Diploma를 받게 된다.

- * AP Seminar: 다양한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효과적인 비평적 글쓰기를 연습(10~11학년 과정).
- * AP Research= 자신의 관심사나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주제를 정하고, 연구 계획을 수립하며, 학술적인 논문을 작성(11~12학년 과정).
- * AP Capstone= 두 개의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학생들은 AP Capstone Diploma를 받게 된다.

Sandy Kim 라인댄스 초급반 오픈

NOW OPEN

제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샌디 김의 라인댄스 초급반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

- 스트레스 해소
- 정신 건강 증진
- 만성질환 예방
- 치매 예방 효과



<초급반>
월·목요일: 오전 9시~10시 15분
<중·고급반>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등록비>
일주일에 두 번 참여시 월 \$80
한 번 참여시 월 \$45
* 한국어로 수업 진행 *

T.562.279.4200

305 E.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